

全體主義의 哲學的 解明

『이즘』에서 『學』으로의 對立 過程(上)

朴致祐

全體主義의 諸相

部分(個別)에 對한 全體(□□)의 □□를 主張한다는 이러한 單純한 意味에서 全體主義라면 우리는 이미 몇 개의 混淆한 □□를 過去에 잇서서 가지고 있다. 멀리는 플라토-[플라톤]의 『이데아』의 『思』想에서 그리고 좀 더 내려와서는 저 有名한 中世의 所謂 實在論者(아리스토텔레스)들의 行論中에서 좀 더 □□하고 思路가 洗□된 몇 개의 理論에 □할 수 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純全히 形而上學的인, 或은 또 認識의 客觀性의 保證에 對한 論證이라는 意味에서는 認識論的인, 그러한 性質의 至極히 觀想的인 全體主義에 지나지 안헛섯다. 그러나 只今 우리가 問題 삼으려는 現代의 所謂 全體主義는 이러한 觀想的인 全力主義와도 처음부터 다르다. 現代의 全體主義는 實在와 實在에 對한 認識이라도 이러한 觀想的인 興味에서 가 아니라 그것은 出發부텨이 벌써 完全히 世俗的인 가령, 나치스면 나치스, 파시즘이면 파시즘, 이러한 強烈한 現實的인 政治運動에 依해서 意識적으로 制約되어 있는 한개의 主張이며, 이러한 意味에서 훨씬 더 行動的인 全體主義인 것이다. 論旨야 多少 거칠든 行論이야 多少째여 잇지 안튼 이런 問題쯤은 거기서는 처음부터 重要的 問題는 아니다. □□과 行動과 要求와 主張을 □□의 外衣로써 □□만 하면 使命은 다 하는 것이다. 行論의 眞爲가 問題가 아니다. 眞實로 善惡이 問題인 따름인 것이다. 行論이 옳흐냐 그르냐가 問題인 것이 아니라, 行論이 民族 乃至 國家를 爲하여서 조흐냐 어쩔흐냐가 致命的인 價値規□이 된다는 말이다. 全體主義의 諸 理論은 그러므로 우리의 『用』 □□에 쫓는다면, (學)이기 보담은 『思想』,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보담 더 情熱적인 보담 더 行動的인 따라서 『이즘』이다. 主張이다. 必要이다. 結論의 一切는 거기서는 原則적으로 出發과 함께 움직일 수 업는 絶對

의 前提로서 所要된다. 民族은 絶對至上의 것이어야만 하며, 永遠不變의 것이어야만 하며, 個人의 『괴의 論理』에 依해서 이러한 全體者와 하나이 되며, 全體者의 分身으로서만 實在할 수 잇스며, 全體者에의 □一에 의해서만 幸福을 어들 수 잇스며, 全體者에 依한 拘束에 依해서만 自由에 關與할 수 잇다는 이가 屯諸□目이 그것이다. 批判과 □□는 지나친 念成이다. 理論家는 表現하고 解釋만 하면 고만곳이다. 全體主義이 諸 理論이 往往 熱은 잇되 論 旨가 거칠고, □□잇되 贅이는 안헛다는 評을 받게 됨은 실은 이 때문이다. 學 이기보다는 아직은 한 개의 『이즘』인 때문이다.

그야 어떠한 그림에도 不拘하고 全體主義는 學으로서의 哲學과 無關일 수는 업다. 아니 어떤 意味에서는 哲學과 全體主義는 本質的으로 끈을래야 끈을 수 업는 □□的인 關係를 가지고 잇다고도 말할 수가 잇슬 것이다. 왜냐하면 部分과 全體□□와 □□의 關係의□□, 이것은 眞實로 哲學에 □□한 哲學만이 풀수 잇는 性質의 問題인 때문이다. 全體主義는 그러므로 적어도 그 自身을 한 개의 『論』으로 새워보려면 좀 더 긋던 哲學의 □□을 빌지 안홀수 업는 立場에서 서게 된다. 全體主義의 經濟理論과 역깨를 맞대고 全體主義의 哲學이라는 것은 요즘에 와서 이곳저곳에서 이러나게 되는 것은 실은 이 때문인 것이다. 우리는 以下에서 그 가장 代表的인 理論만을 추려가면서 □□의 □□乃至 源□과 아울러 그것들의 『이즘』的인 性格에 對해서 解明해 보기로 하자.